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며칠 전부터 난데없이 미국의 한 연구 소에서 분석한 보고서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이를 미국의 한 언론이 북한의 거대한 속임수·기만 등으로 보도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그 보고서에 언급된 삭간돌 미사일 기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 군 정보 당국도 파악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동가지가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축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연관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지금 핵·미사일 관련 북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히려 앞으로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폐기 문제를 미국과 합의하기도 전에 뒤통수를 찡그리니 혹은 기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굳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게

가짜 뉴스는 우리 모두의 적이다

누군지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일이다.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점이다. 6·12 선포사합의 이후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서 북미간 초기 조치의 연결점을 찾기도 하였다. 9·19 남북 정상선언에서의 비핵화 관련 합의가 그것이다. 막상 초기 조치로 들어가려니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여전히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비핵화 및 제재 해제에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은 핵 동결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면이다. 얼마 전 개최하기로 한 북미 고위급 대화의 연기도 명목상의 이유야 어찌 됐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백히 좁혀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며 북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차 정상회담의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내년 초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적이나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지난한 협상의 과정에서 경계할 점은 상황의 변화와 뜬금없는 약재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아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입지에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 협상의 운전자들 자처하고 북한 문제 당사자인 우리도 미국 의회 및 조야에 퍼지고 있는 북핵 해결 무용론에 대해 많은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보다 정말 경계할 것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편승한 근거 없는 기사들과 어떤 의도가 내포된 주장들이다. 의도를 내포한 주장들은 사안을 왜곡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후 1998년 8월 미국 언론은 갑자기 북한이 물대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인근의 평북 금강리에도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금강리 핵 의혹’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사찰단을 꾸려 금강리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사찰단은 텅빈 동굴만 발견했을 뿐 결국 핵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북미 간 불신은 더욱 커졌고 제네바 합의 이행은 늦춰졌다. 뒤늦게 페리 프로세스로 북미 수교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1~2년간 소비한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0여년 전 우리 역사를 살펴보자. 정유재판 당시 조선의 조정은 일본에서 흘러 퍼진 정보를 신뢰하여 이순신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다. 거짓 정보라고 판단한 이순신은 출병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당시 조정 내에 만연한 당파싸움을 이용하여 이순신을 모함·체포케 만들었다. 이후 등장한 원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왜군에게 처참히 패하였다. 민감한 시기에 서 어떤 사안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는 여러 역사적 사건이 증명한다. 지금 한반도는 현상 유지 세력과 현상 타파 세력 간의 거대한 기싸움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70년 분단 구조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맞춰 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잘 살펴보지도 않은 채 거부하고 경계를 하곤 한다. 이는 미국이나 주변국도 마찬가지이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타파하는 것은 늘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외곽이고 주장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려 하시는 안 된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는 영속적으로 분단 구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가짜 뉴스와 현상 왜곡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

종교칼럼

인생의 시험을 겪고 있는 그대에게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오늘로 수능이 끝났다. 그동안 고생해 온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과정 과정마다 많은 시험을 치르고 살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까지, 또 졸업 후 직장장과 승진 시험 등 끊임없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며 살아간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되뇌게 된다.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시험은 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시험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과거의 결산뿐 아니라 내일을 열어가는 출발선이다.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출발선이

과정이자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큰 성공의 길이 열리기 전에 부딪히는 작은 재앙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재앙에 앞서 작은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누구나 변화의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시험을 겪게 됨을 말이다. 설령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에도 그 자격과 신용을 시험해보게 되는데, 인생의 큰 문을 열고 큰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그에 비례하는 인생의 시험이 왜 없겠는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얼마 전 속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이 사회에 던져 준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입학의 기회가 왔을 때 승낙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2%의 학생이 부정한 정답을 승낙하겠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치 수능시험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인 듯 생각하는 우리의 우리 아이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 쌍둥이 자매와 교무부장 아버지는

명백히 인생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수능 시험만을 시험으로 인식한 채, 정작 인생의 시험은 시험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또 다른 인생의 시험대나 다름없다. 한번 실패한 시험에 낙담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어진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며 정당한 노력으로 성공하는 결과를 얻어지기를 기원한다. 지금 인생의 시험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험에는 그 시험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시험으로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사 어떤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재앙이 계기가 돼 큰 복을 받는 시험이 되었든, 작은 복 때문에 큰 재앙을 받는 시험이 되었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정당한 노력으로 열매를 얻는 소중한 기회의 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社說

KTX 호남선 직선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

KTX 호남선의 직선화 요구가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옛그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KTX 호남선의 직선화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호남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직선화 요구에 대해 계속는 의해 보고자 답해 호남선 직선화 수용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의원들은 팽택·오송 간 북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계획에 호남선 직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미 예타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경부선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논의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호남선 직선화 필요성은 비단 호남인들만의 요구는 아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

에서 직선화될 경우 이용객들이 얻는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천안-오송-공주인 현재 노선을 천안-세종-공주로 직선화하면 19km가 줄어 시간은 10분, 비용은 3000원이 절약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년이면 이용객들이 44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면 직선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호남선 직선화는 세종역 신설과 맞물려 호남과 충청 간 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용객 편익이나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이용객 편익 측면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고 비용 측면에서도 팽택·오송간 북복선화나 단거리 노선 신설을 통한 호남선 직선화나 차이가 없다. 정부는 2005년 KTX 호남선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결정했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세 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 거둬들여야

정부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그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에 따르면 2606명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가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광주 지역의 상습 체납자는 1281명(714억84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345명(법인 62, 개인 283명)이었으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신규자는 정평동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억20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라인건설이 취득세 17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지역의 지방세 체납자는 345명(법인 62, 개인 283명)으로 체납액은 194억 원이었다. 전남의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325명(795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규 체납자는 224명(97억 원), 기존

체납자는 1101명(698억 원)이었다.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목포에 사는 이윤남 씨(16억 원)였으며 법인은 광양의 부동산 업체 ‘인하우징’(55억 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버티고서 일관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신규 체납자들이 600여 명에 달한다는 건 당국의 명단 공개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체납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세 상습 체납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체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해 우승의 짜릿함을 맛본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 최근 끝난 두산과 SK의 한국시리즈는 ‘강 건너 불구경하기’였을 것이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여유를 부리며 볼 수 있는 경기였으니까. 두산은 정규 시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데다, 전문가와 팬들 모두 ‘어우두’를 외치며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 했지만, 힘 한 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방망이는 득점관에서 싸늘하게 식었고, 무려 7개의 실점만 허용한 정도로 끈끈한 수비 조직력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강 건너 KS 구경

반면에 SK는 가장 SK다운 경기를 했다. 중요한 고비마다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지어 시리즈를 주도했다. 번트 작전을 통해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스몰볼’에서 벗어나 홈런을 평평 터뜨리는 ‘빅볼’로의 전환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6차전 9회 최정의 홈런이었다. 두산 린드블럼이 스트라이크 하나를 남겨 둔 상황에서 동점포를 허용해 결국 시리즈를 내준 것은 ‘공’ 하나의 중요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것 같다.

한국시리즈를 보며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다. 두산의 허경민·최주환, SK의 김성현·강승호 등. 특히 양의지가 두산에서 펄펄 나는 것을 보면 엔지 가슴이 아리다. 특히 공격형 포수의 부재가 아쉬운 KIA 팬들로서는 FA 자격을 얻게 되는 양의지를 보는 시선이 남달랐을 것이다. SK의 정영일도 반가운 이름이다. 진흥고 시절 대통령배 대회에서 이를 연속 삼진 23개를 뽑아내며 고교 야구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운 선수였으니. 하지만 투구수 242개가 유망후 흡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LA 에인절스에 입단했지만 결국 국내로 유턴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5경기에 출전해 21타자를 상대로 단 3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친 그는 SK 마운드의 버팀목이었고 사실상의 시리즈 MVP였다. 양의지는 과거 한기주에 밀려 KIA의 지명을 받지 못했고 정영일은 힘때고 고향 팀에서 폼이 주지 못했다. 이들이 언제까 광주를 안방 무대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기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위해 힘 모아야 할 때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연간 1770만 명(2015년 기준)이나 된다. 전 세계 사망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계만 봐도 심혈관 질환이 ‘국가 재앙’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지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2조 8300억 원이다. 국립암센터와 같은 성격의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해 심혈관 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고혈압,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협심증, 심근 경색증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은 네 명 중 한 명의 목숨을 앗아 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

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심혈관 질환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선 여전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 정부 주도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전남 장성, 광주 북구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사태가 한국을 엄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료인으로서 감격스러운 경사였다. 장성군은 전남대병원과 손잡고 민선 4기 시절인 2007년부터 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에 건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만인 군민 서명 운동을 벌였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부 부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솔하게 방문해야 했다. 지난 10년간 장성군의 눈물겨운 노력이 국립심혈관센터 유지라는 결실을 낳은 것이다. 그렇다면 장성군과 전남대병원은 왜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설득한 것일까? 장성만큼 안성맞춤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발병 후 3시간 안에 치료해야 하는 응급 질병이다. 따라서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진단·치료 장비 구비 등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심혈관센터 최적지인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에는 광주와 인접한 데다 전남과 전북의 중앙에 자리해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또 전문 의료진이 많은 전남대병원과 가깝고 GIST, 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포함돼 첨단 의료 기술과 기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축령산 편백림은 재활 치료 요양 인프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장성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셈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장성은 최적지다. 충북 오송(충청권)과 대구(경상권)의 첨단 의료 복합 단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호남에 의료 연구 클러스터인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하면 문재인 정부가 당위로 내세우는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 불균형 해소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은 장성을 넘어 호남,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사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와 국

회,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국립심혈관센터 조기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총 3500억 원을 투입해 33만500㎡(약 10만 평) 부지에 연구(R&D)센터, 500명상의 연구 임상 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산학 협력관 등을 갖춘 센터를 세우는 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국립심혈관센터 진행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만 낙관하지 않는다. 기관별 처리 과정과 행정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돼 국민 건강 복지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적인 이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당부한다. 지금은 지혜와 결단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때다. 국민의 건강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체육부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